

10000 원 (정가) 10000 원 (정가) 10000 원 (정가)

Stereo Sound

세계의 하이엔드 스피커
그 다채로운 음향미

SUMMER 150
2004 No. 150

2004 SUMMER TEST REPORT

가장 스테레오 사운드 NO.150 2004 [한국판 여름호]

문화관광부 선정 재가외 우수 잡지



전원의 순도를 증거하는 에비던스 오디오의 '더 소스' 확연히 높아진 저음역 해상도

우리에게 생소한 에비던스 오디오(Evidence Audio)는 1997년 설립된 케이블 전문 회사. 주로 약기나 리코딩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케이블을 생산하는데 국내에는 모두 네 가지 오디오용 케이블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에는 더 소스(The Source) 전원 케이블을 소개한다.

사진·최도재/지 채금 글·무한열사/김영노희



EVIDENCE AUDIO Power Cable The Source

₩242,000

- 선材 : ETL 용선 ●소재 : PVC
- 용량 : 후부력 7A 120V ●표준 규격 : 12AWG
- 길이 : 1.5m ●용도 : 파워앰프, CD 플레이어, DAC

에비던스 오디오의 설립자이자 현 주재자인 토니 파라올라는 유명한 케이블 브랜드인 오디오퀘스트 사의 부사장 출신이며 엔지니어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에비던스 오디오 케이블의 품질은 오디오퀘스트 제품과 필리파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오디오퀘스트가 저가 제품 생산 라인을 줄 것으로 옮긴 데 비해 에비던스 오디오는 모든 제품을 오디오퀘스트의 미국 공장에 위탁 생산하므로 저가형 제품은 오히려 에비던스 오디오 제품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가격은 오디오퀘스트 케이블의 1/4 수준으로 가격 대 성능 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에 소개되는 오디오용 제품 라인은 모두 네 모델로 더 사이렌(The Siren) 스피커 케이블, 더 리릭(The Lyric), 더 리릭 HO(The Lyric High Gain) 인터커넥트, 그리고 이번에 소개한 더 소스(The Source) 전원 케이블이다. 오디오

는 하이엔드급으로 갈수록 음질 향상을 액세서리에 의한 음질의 업그레이드 효과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스피커 케이블 교체에 의한 음질 변화는 이미 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케이블에 의한 음질 변화는 피복의 소재, 인덕턴스, 정전 용량, 선재의 소재와 구조, 단말 처리 등에 영향을 받는데, 전원 케이블을 잘못 사용하면 대역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음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리뷰를 위해 도착한 에비던스 오디오의 더 소스 전원 케이블은 12AWG 굵기의 케이블에 후부력의 고급 AC 커넥터로 단말 처리되어 있는 길이 1.5m 제품이다. 테스트를 위해 먼저 기존 파워 앰프의 오리지널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에비던스 오디오 제품을 연결했다.

기존 케이블과 비교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음역의 변화다. 저음의 존재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힘이 실려

베이스 음의 해상도와 침투력이 증가해 선명한 음으로 다가온다. 전에는 풍겨던 음질의 에너지가 살아나면서 악기들의 정위가 뚜렷해지며, 다소 거칠게 들렸던 보컬의 배음이 부드럽고 살해하게 변화한다. S/S도 많이 높아질 느낌.

제공된 케이블이 하나뿐이어서 프리앰프, 파워 앰프, CD 플레이어 등 서로 연결한 못했지만 연결이 거미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파워 앰프에서 가장 극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CD 플레이어, 프리앰프 순이었다. 다만 음질 변화의 방향은 거의 동일했다. 전원 케이블 교체에 따른 음질 향상에 다소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리뷰는 심철한 결함이었다. 비록 수치적으로는 미세한 변화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이상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갈려는 것이 괜히 헛헛하다. 역시 오디오는 경험 이 맺힌 듯하다. ☺